12억 거래설…우즈 입단속 나섰나

믿거나 말거나…진흙탕 폭로전 여전

“이혼땐 3억달러 준다” 등 혼전계약금 주장도 불붙은 취재경쟁 현지언론 추측성 보도 난무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우즈가 외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과를 했지만 골프 황제의 사생활을 둘러싼 추측 보도는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레이더온라인 닷컴’은 3일(현지시각) 우치텔이 우즈 측에 100만 달러(한화 11억5000만원)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우치텔이 3일 우즈와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바로 100만 달러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인터넷매체는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불륜설 보도를 주도한 연예폭로 전문사이트 ‘TMZ 닷컴’은 우즈의 여자 중에 우치텔과 제이미 그럽스 말고도 라스베이거스 클럽 ‘더 뱅크’매니저인 칼리카 모킨도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폭로전을 이어갔다.

우즈의 사생활을 둘러싼 지저분한 취재 경쟁이 불을 뿜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폭로도 나왔다. ‘데일리뉴스 닷컴’은 사고 당일인 11월 27일 플로리다에 있는 우즈의 집에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 외에 우즈의 어머니와 장모까지 있었다고 옆집 주민의 입을 빌려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고 당일 우즈의 어머니와 장모가 우즈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우즈의 불륜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부인 노르데그린이 이혼할 경우 받게 될 액수도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에스 매거진 닷컴’은 노르데그린이 ‘이혼 시 3억 달러를 받는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정도 금액이면 NBA 스타 마이클 조던이 2002년 전 부인 주아니타에게 준 위자료 종전 최고 기록(1억5000만 달러 추정)의 두 배다.

하지만 혼전 계약금이 3억 달러가 아니라 2000만 달러라고 보도한 매체도 있었고, 우즈가 부인에게 우선 500만 달러를 준 뒤 2년 더 함께 살아주면 혼전 계약금에 5500만 달러를 얹어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주장한 매체(일간 뉴욕포스트)도 있었다. 모두 근거는 없는 주장일 뿐이다. 우즈의 추락에 저급한 뉴스 사냥꾼들만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사생활을 둘러싼 온갖 추측 보도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후원사들이 우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첫 여인’ 우치텔 기자회견 돌연 취소

“우즈 측 접촉…입막음 대가 거액 제공”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첫 번째 스캔들 상대로 지목된 레이첼 우치텔의 변호인이 3일 LA에서 갖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했다.

우치텔이 이번 스캔들에 대처하려고 선임한 글로리아 올레드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우즈와 우치텔의 관계를 밝힐 것으로 알려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치텔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연예 전문매체들은 갑작스런 기자회견 취소와 관련해 우즈 측이 우치텔과 접촉해 입단속을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 보도들을 내놓고 있다.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지난 주 우즈가 뉴욕 나이트클럽의 호스티스 우치텔과 애정 행각을 벌여왔고 최근 참가한 호주 마스터스 대회에도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불륜설을 부인했다.

우즈 후원사들 “그래도…우즈 지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외도 시인 이후 미국에서 사생활 공개에 대한 자성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즈를 후원해왔던 미국 기업들도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즈의 최대 스폰서 업체인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이키는 사생활 존중에 관한 그의 요구를 존중하며 타이거와 그의 가족을 지지한다.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음료 브랜드 게토레이도 “이번 사생활 문제를 겪는 동안 타이거와 그의 가족이 우리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디오 게임업체 일렉트로닉 아츠의 대변인도 “우리는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그가 하루빨리 회복해 골프 코스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도기 제조업체 질레트는 광고모델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처럼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처럼 그들도 실수를 저지른다. 현재 기존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北 새 화폐 구경해 볼까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화폐들이 발행됐다. 사진은 5000원, 2000원권의 앞면과 뒷면. 연합뉴스

명지대 ‘친환경 모범대학’ 비전 선포·심포지엄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사진)가 7일 오후 3시 용인 자연캠퍼스 명진당에서 ‘저탄소 친환경 모범대학 비전 선언식 및 실행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서정석 용인시장,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환경단체, 지자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며,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경기그린스타트네트워크,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대학의 경제적 편익을 알리는 한편,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도 함께 모색한다.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한 유관 단체와 그린캠퍼스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모범 사례를 개발해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기도 하다. 명지대학교는 교내에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 대학원 평균 경쟁률 3.2:1 인기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4일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 전형 결과 총 290명 모집에 929명이 지원, 평균 3.2: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모집에서 심리상담 전공이 9.7: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체 학과가 정원을 상회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19일 면접을 거쳐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알바 대학생 돈 훔치고 “강도 당했다” 자작극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뒤 2인조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특수절도)로 대학생 정모(19)군과 후배인 이모(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정군은 후배인 이군과 함께 이날 오전 5시15분께 금고에 든 현금 40만원과 담배 30만원어치를 훔친 뒤 강도 2명이 편의점에 들어와 금고에서 돈을 꺼내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도 2명이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편의점이 있는 건물 전체의 전기를 끄고 금고 열쇠를 한번에 찾아냈다는 진술을 의심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지난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다녀간 경기도 포천의 명소 허브 아일랜드가 200만개의 조명과 함께 야간 개장에 나섰다. 아름다운 불빛과 허브의 조화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0만개의 불빛 ‘초롱초롱’ 추억만들기

포천 ‘허브 아일랜드’ 내년 2월까지 불빛축제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작년 한 해만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경기도 포천의 명소 ‘허브 아일랜드’가 휘황찬란한 빛을 밝히며 내년 2월 말까지 ‘200만개 불빛 축제’에 돌입했다.

허브 아일랜드는 최근 야외 정원 등 곳곳에 200만개의 전등을 설치하고, 야간 개장에 나섰다. 오후 5시부터 점등을 시작해 폐장 시간인 오후 9시까지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밝힌다.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가면 가든 파티, 댄스 파티, 색소폰 연주, 라이브 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축제를 벌인다. 곤돌라가 물 위를 떠다니는 베네치아, 소원을 비는 로마의 트레비 분수 등 새로운 볼거리도 만들었다. 6600m²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허브 실내식물원에서는 로즈마리, 자스민, 제라늄 등 겨울 허브를 비롯 모두 200여종의 허브를 만날 수 있다.

허브 아일랜드 임옥 대표는 “밤에도 허브와 불빛이 아름다운 조화를 연출할 수 있도록 꾸몄다”고 말했다.

031-535-6490

최은영씨 대한민국 UCC 대상 문화부장관상

최은영

이진호

김상구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동아닷컴 동영상 전문 객원기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3회 대한민국 동영상 UCC 대상’에서 최고상 등 주요 상을 받았다. 최은영 객원기자는 최고상인 문화부 장관상을, 이진호 김상구 객원기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동아닷컴 객원기자들은 이 공모전에서 1회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아사히 수퍼 뮤직 파티’ 클러버 열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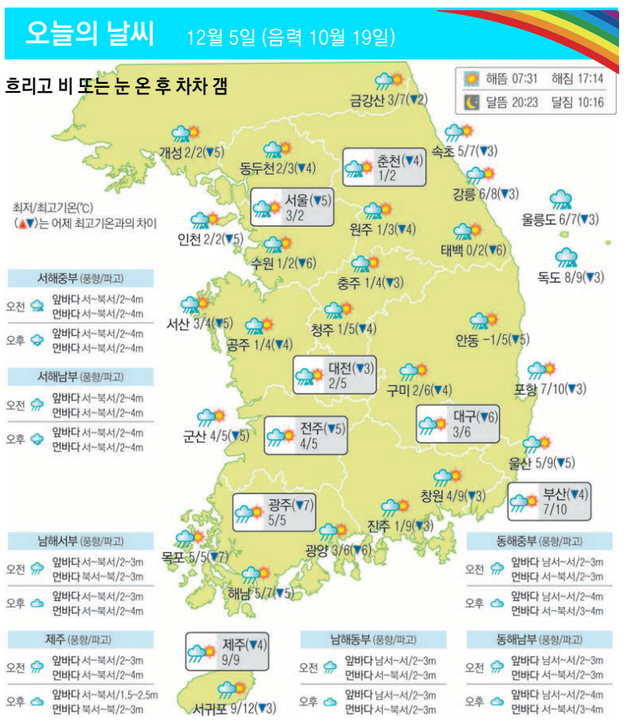
㈜롯데아사히주류는 4일 서울 홍대 앞 클럽 ‘VERA’에서 아사히 맥주와 최고의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아사히 수퍼 뮤직 파티’를 열었다. 롯데아사히주류 측은 “하우스, 애시드, 재즈를 넘나드는 퓨전 멜로디 라인의 명품 아티스트 재지다 그란데 공연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의 크로스 오버, 하우스, 댄스와 일렉트로닉카를 넘나드는 음악으로 클러버들을 열광시켰다”고 말했다.

할머니 축의금 절도단 “하필이면 그걸…”

2명의 할머니 축의금 절도단이 하필 혼주의 여동생이 낸 축의금 봉투를 슬쩍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67·무직·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범행한 김모(72·무직·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낮 12시20분께 마산시내 모 결혼식장에서 김 씨가 축의금 접수자에게 “식권을 달라”고 주의를 돌리는 사이 이 씨가 10만원권 수표 5장이 든 축의금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축의금 봉투는 혼주 S씨(54)의 여동생이 낸 것으로 S씨가 결혼식을 마친 뒤 축의금 중 여동생의 이름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들통났다.

오늘의 날씨 12월 5일 (음력 10월 19일)

흐리고 비 또는 눈 온 후 차차 갬



강수 확률

	오전/오후		오전/오후
서울	80/10	대전	70/20
인천	80/20	전주	80/20
수원	80/20	광주	80/20
춘천	70/20	대구	60/10
원주	70/20	포항	60/10
강릉	60/0	울산	60/10
충주	70/20	부산	60/10
청주	70/10	제주	60/20

지역날씨 최저/최고 기온

	6일 (일)	7일(월)	8일(화)
서울	-4/2	-2/8	0/9
인천	-3/3	-1/8	1/9
수원	-3/4	-2/8	-1/9
춘천	-6/3	-5/7	-3/8
원주	-5/3	-6/7	-4/8
강릉	1/7	2/10	4/11
충주	-6/5	-5/8	-1/10
청주	-4/6	-3/9	1/11
대전	-2/7	-3/9	0/11
전주	-1/8	-1/11	0/12
광주	0/10	0/12	1/13
대구	-2/7	-2/11	1/13
포항	-2/8	0/12	3/14
울산	-1/9	0/13	3/13
부산	1/10	3/13	6/13
제주	6/10	7/12	9/13

WEATHERi 웨더아이(주) 제공 www.weatheri.co.kr 날씨문의 국번없이 131

스포츠동아 sports.donga.com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 인쇄인 최맹호 | 편집인 이재권 | 편집국장 이성춘 | 광고국장 직무대행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스포츠부 02 2020 1051-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66
레저생활부 02 2020 1071-74
사진부 02 2020 1027-29, 1068-69

(우)110-71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스포츠동아2008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